

샘

샘물중고등학교 2016 가을소식지



1 DAY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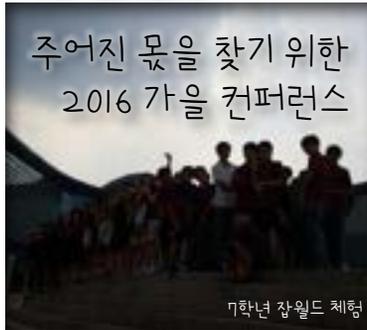
2 DAY
내 안에 있는 소중한 것



3 DAY 나의 모습으로 섬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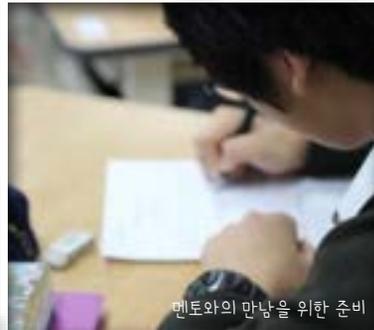


활동 프로그램
: 내면이야기 - 칭찬사건 - 은사는 조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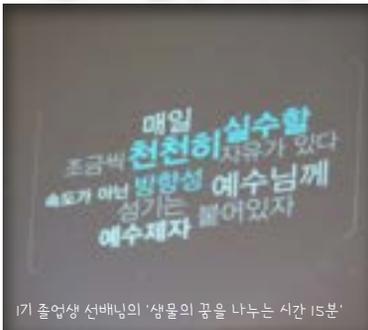


주어진 몫을 찾기 위한
2016 가을 컨퍼런스

7학년 잡월드 체험



멘토와의 만남을 위한 준비



기 졸업생 선생님의 '샘물의 꿈을 나누는 시간 15분'



34분의 멘토와의 만남



여비중등과 7학년 가치경매

샘물이야기 샘 | 여섯 번째 이야기 V.1.6

섬기는 예수 제자의 목적 있는 일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갑니다.
샘물이야기 '샘'을 통해 다음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함께 주목했으면 합니다.
다음세대 생명과 교회가 바로 이곳 샘물학교를 통해 세워지고 있습니다.

contents

학교장인사 01

샘물의 발자국 02

샘물, 주어진 몫을 찾다 04
<가을 컨퍼런스 스케치>

샘물의 과학교육 20

사랑샘의 하루 24

가을에 읽는 샘물영시 27

샘물의 연극수업 30

졸업생 이야기 32

복상세움 맛보기 34

샘물로고를 소개합니다 36



샘물중고등학교

샘물이야기 샘 | 여섯 번째 이야기

V.1.6

발행일 : 2016년 10월 12일

발행처 : 지원본부 대외협력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로 156

문의 : 031.714.7091

이메일 : support@smca.or.kr

홈페이지 : www.smca.or.kr

페이스북 : www.facebook.com

/ilovesmca

가을입니다 낮은 곳으로 사랑할 때입니다



글 _ 샘물중고등학교장 이찬형

“한 잎 두 잎 나뭇잎이 / 낮은 곳으로 / 자꾸 내려앉습니다 / 세상에 나누어줄 것이 많다는 듯이 // 나도 그대에게 무엇을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 할지라도 / 그대여 / 가을 저녁 한때 /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십시오 / 사랑은 왜 / 낮은 곳에 있는 지를” (안도현, ‘가을 엮서’ 전문)

일미칠근(一米七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을에 쌀 한 톨이 열매 맺기까지 농부는 일곱 근의 땀을 흘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쌀 한 톨이 영글 때까지 농부의 손길은 100번 이상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지요?

어릴 적에 어른들은 밥상머리에서 이런 말로 자녀들을 교훈하셨습니다. 밥알 하나도 아까운 줄을 알라는 거였지요. 그래서 얼굴도 모르는 농부를 떠올리면서 밥알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비우고서야 식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은총 아래 산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자랍니다. 미래세대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 시대를 먹여 살릴 생명의 터요, 미래교회의 모판인 예수 제자들입니다. 샘물인의 10대 시절은 하나님의 은총의 햇빛과 호흡인 바람 그리고 농부의 땀과 손길과 발자국 소리가 필요합니다. 그 필요는 건 강한 교회의 지도자와 공동체를 통해서, 가정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학교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채워져 갑니다. 어느 하나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일곱 근의 땀 흘림, 100번의 손길들, 부지런한 발소리는 낮은 곳으로 보내는 사랑의 표현입니

다. 사랑은 먼저 성장한 어른의 몫입니다. 샘물인들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과 선생님을 통해 받게 됩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도관(導管, conduit)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어 나를 뿐, 사랑의 근원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선생님도 겸손하게 됩니다. 끊임 없이 하나님의 공급 가운데 성장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갑니다. 그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과 선생님의 ‘인생도관’을 타고 다음 세대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안도현 시인이 본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나무는 자신을 벗어 낮은 곳으로 잎사귀를 떨어뜨리며 새로운 생명을 준비합니다. 그 나뭇잎은 우리에게 엮서(葉書)가 되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낮은 곳으로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는 가진 게 많습니다. 나무보다 많습니다. 우리 생계의 무거움이 어깨를 누를 때, 나무가 전해주는 낙엽의 편지(엽서)를 읽어야 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하신 것’(고후8:9)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요케 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본을 따라 우리 삶이 가난할 때에도 오히려 예수의 부요함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헐벗은 그 대로 주님의 사랑을 덧입을 때, 우리는 낮은 곳으로 사랑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전령이 될 것입니다.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십시오 / 사랑은 왜 / 낮은 곳에 있는 지를”

샘물의 발자국

2016.07 ~ 11월

뜨겁게 쏟아졌던 피약벌이 한순간 지나가고 결실을 기대하는 가을학기가 진행 중입니다. 주안에서 하나된 샘물배움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모두를 매일, 조금씩, 천천히 섬기는 예수 제자로 변화시켜 갑니다.





◀ 2016 미술 전공반 학생들의 별관A동 벽화프로젝트

7월

7/6-8 여름맞음

7/12 학부모교육



7/13 예비중등&7학년 연극 / 12학년 모의고사



7/15 여름방학 예배

7/18-29 여름방학 특강



9월

9/3 본교 입학설명회

9/5-9/6 학부모교육

9/13 Teacher's Day



9/22 연합예배

9/23 샘물 수학, 열매를 맺다



8월

8/1-6 RSI(흐르는 생수의 강) 연수

8/16-18 교직원 연수

8/22 개학예배



8/23 제1회 영어어휘증진대회



8/27 학부모 복상세움

8/31- 9/2 가을 컨퍼런스



10월

10/10 학부모교육

10/12 Teacher's Day

10/18-20 가을맞음

10/22 은혜샘물교회와 함께하는 바자회

10/25-28 체험학습 및 여행

11월

11/10 Teacher's Day

11/14 학부모교육

11/17 수학능력시험

11/18 추수감사예배

11/25 샘물문화축제

가을 컨퍼런스 스케치

샘물, 주어진 몫을 찾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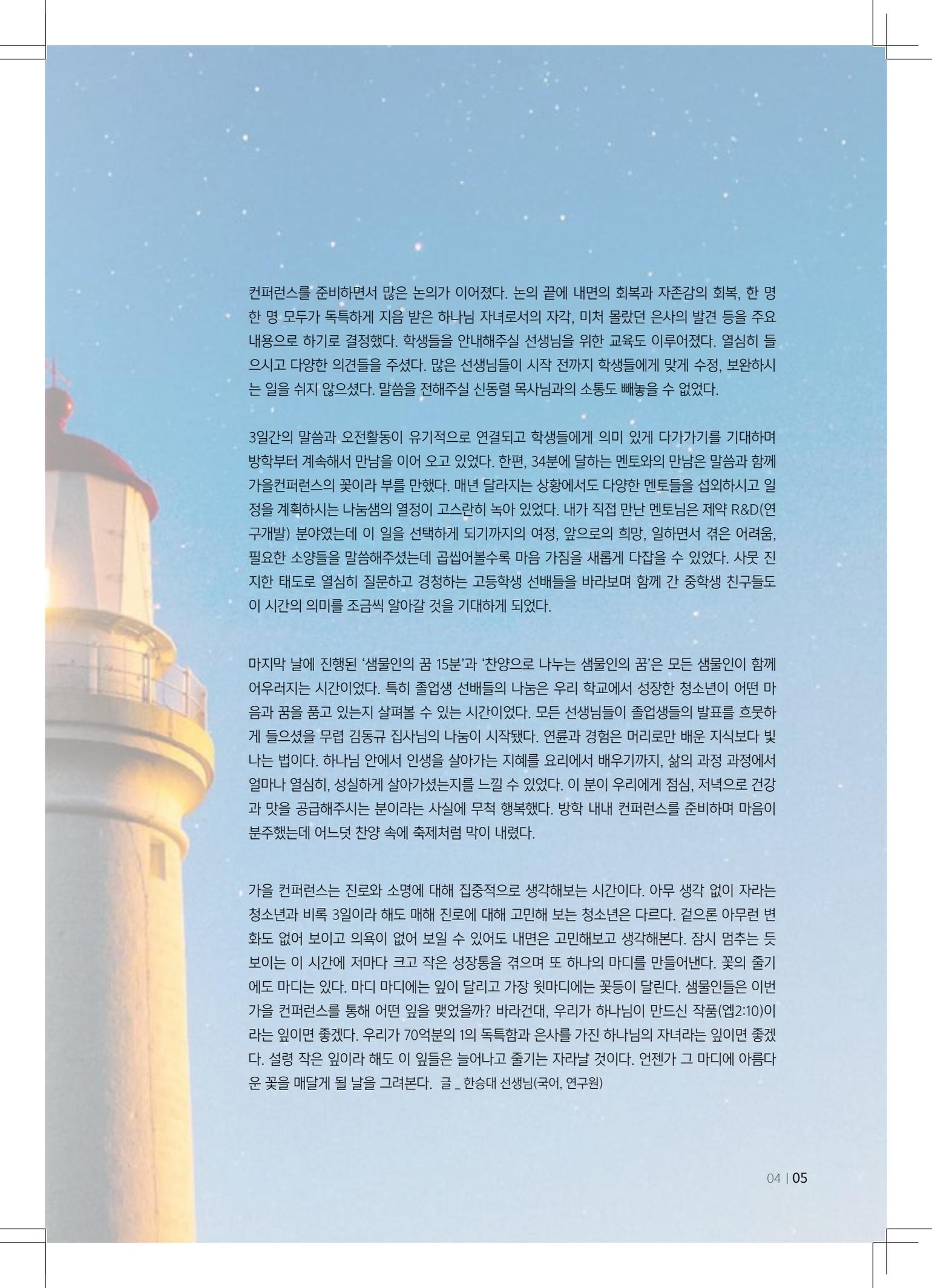
샘물인들이 3일 동안 다함께 참여하는 가을 컨퍼런스는 자신의 은사와 적성을 알아가고, 직업 탐색과 직업 현장 체험(직업멘토 만나기)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몫(소명과 진로)을 찾아가는 공동체활동입니다.

주어진 몫을 발견하고 찾아가다.

비전, 진로, 소명, 꿈... 언뜻 서로 비슷해 보이는 이 단어들을 풀어내는 현장에 가보면 당혹스러울 때가 많다. 제각각 내리는 정의가 다채로운 것은 이해하지만, 시작점만큼은 양보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꿈은 내가 꾸지만,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어찌 보면 말장난 같은 문장이 내겐 무게 있게 다가왔던 순간이 있었다. 각종 성격검사와 심리검사, 적성검사 등은 나 자신을 아는 데에 도움을 주기보단 나 자신을 규정짓는 틀로 다가올 때가 많았다. 무수한 항목에 표시해 나가며 '나도 나를 모르겠다'라며 되뇌는 적도 많았다. '하나님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신다.'라는 단순 명쾌한 명제는 진로 앞에 뒷전이 되기 일쑤였다.

그렇다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신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할 수 있는지, 수많은 사명 중에 어떤 것에 기꺼이 반응할지 그분은 알고 계신다. 정말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대답도 경건 시간과 땀 흘리는 현장을 아우르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온다 확신한다. 진로와 소명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아시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학생들에게 어떻게 안내하고 교육해야 하는 것일까?

컨퍼런스 주제 '샘물, 주어진 몫을 찾다'는 샘물이 진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섬기는 예수 제자로서의 몫을 다해야 한다. 이 몫은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몫을 찾고,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몫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늘 컨퍼런스의 화두였다. 이를 위해 올해 여름방학 동안 소명교육개발원의 소명지도사 연수에 참여했다. 그동안 고민해 온 질문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과 실제적인 방법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실제적인 필요 때문에 여전히 이런 은사면 어떤 학과를 가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궁금했지만, 연수를 수료한 후에 궁금증은 많이 사라졌다. 적성, 학과, 직업을 찾는 도구와 정보들은 이미 너무 많이 있었다. 중요한 건 첫 시작점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과 진로 교육에서 하나님과의 접점을 어떻게 제공할 지에 대한 방법들이었다.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많은 논의가 이어졌다. 논의 끝에 내면의 회복과 자존감의 회복, 한 명 한 명 모두가 독특하게 지음 받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각, 미처 몰랐던 은사의 발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학생들을 안내해주실 선생님을 위한 교육도 이루어졌다. 열심히 들으시고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다. 많은 선생님들이 시작 전까지 학생들에게 맞게 수정, 보완하시는 일을 쉬지 않으셨다. 말씀을 전해주시실 신동렬 목사님과의 소통도 빼놓을 수 없었다.

3일간의 말씀과 오전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학생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가기 기대하며 방학부터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 오고 있었다. 한편, 34분에 달하는 멘토와의 만남은 말씀과 함께 가을컨퍼런스의 꽃이라 부를 만했다. 매년 달라지는 상황에서도 다양한 멘토들을 섭외하시고 일정을 계획하시는 나눔샘의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내가 직접 만난 멘토님은 제약 R&D(연구개발) 분야였는데 이 일을 선택하게 되기까지의 여정, 앞으로의 희망, 일하면서 겪은 어려움, 필요한 소양들을 말씀해주셨는데 곱씹어볼수록 마음 가짐을 새롭게 다잡을 수 있었다. 사뭇 진지한 태도로 열심히 질문하고 경청하는 고등학생 선배들을 바라보며 함께 간 중학생 친구들도 이 시간의 의미를 조금씩 알아갈 것을 기대하게 되었다.

마지막 날에 진행된 '샘물인의 꿈 15분'과 '찬양으로 나누는 샘물인의 꿈'은 모든 샘물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이었다. 특히 졸업생 선배들의 나눔은 우리 학교에서 성장한 청소년이 어떤 마음과 꿈을 품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모든 선생님들이 졸업생들의 발표를 흐뭇하게 들으셨을 무렵 김동규 집사님의 나눔이 시작됐다. 연륜과 경험은 머리로만 배운 지식보다 빛나는 법이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요리에서 배우기까지, 삶의 과정 과정에서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셨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이 분이 우리에게 점심, 저녁으로 건강과 맛을 공급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무척 행복했다. 방학 내내 컨퍼런스를 준비하며 마음이 분주했는데 어느덧 찬양 속에 축제처럼 막이 내렸다.

가을 컨퍼런스는 진로와 소명에 대해 집중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이다. 아무 생각 없이 자라는 청소년과 비록 3일이라 해도 매해 진로에 대해 고민해 보는 청소년은 다르다. 겉으로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이고 의욕이 없어 보일 수 있어도 내면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잠시 멈추는 듯 보이는 이 시간에 저마다 크고 작은 성장통을 겪으며 또 하나의 마디를 만들어낸다. 꽃의 줄기에도 마디는 있다. 마디 마디에는 잎이 달리고 가장 윗마디에는 꽃등이 달린다. 샘물인들은 이번 가을 컨퍼런스를 통해 어떤 잎을 맺었을까? 바라건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엡2:10)이라는 잎이면 좋겠다. 우리가 70억분의 1의 독특함과 은사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잎이면 좋겠다. 설령 작은 잎이라 해도 이 잎들은 늘어나고 줄기는 자라날 것이다. 언젠가 그 마디에 아름다운 꽃을 매달게 될 날을 그려본다. 글 _ 한승대 선생님(국어, 연구원)



궁금해요, 컨퍼런스 활동

글 _ 장유정 선생님(연구원)

요즘 세대를 가리켜 3포, 5포도 모자라서 N포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세대 가운데 샘물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전, 소명을 찾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학생들이 비전을 찾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이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많은 아이가 '잘 하는 것이 없어서'라고 이야기 합니다. 무엇인가를 잘 할 수 있는 아이가 자신감도 높다고 생각하지만, 자신감은 그 능력에만 비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자신감은 그 능력을 인식하는 정도에 비례합니다. 즉,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명교육개발원 신동렬 목사님은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경쟁으로 치닫고 성공을 지향하는 이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사회는 아이들 개개인의 가치와 독특함을 무시한 채 도장 찍듯 획일화된 기준을 제시하며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수많은 지식을 쌓으라고 강요합니다. 둘째로 이 시대의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을 확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부러워하면서 정작 자신에게 있는 것이라면 무조건 무가치하다고 여기기에 자신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각 사람에게 그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재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 우리 아이들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하나의 잣대에 자신을 재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은혜로 주어졌고 내 곁에 있는 그 귀한 선물을 찾아내고 그 가치를 인식해야 합니다.

2016 가을 컨퍼런스, '샘물, 주어진 몫을 찾다,'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보물을 찾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신동렬 목사님의 도전적인 말씀 후 이어진 오전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특징과 장점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Day 1
내면 이야기

우리의 삶은 자신이 가진 조건이 아니라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세상은 어떠한 조건을 가졌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스펙(SPEC)을 많이 쌓을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조건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 즉 자기 자신과 세상을 해석하는 태도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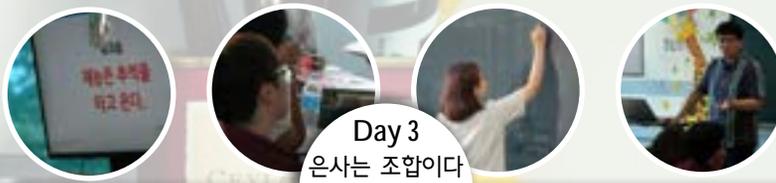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어떤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가? 대부분의 아이는 자라오

면서 주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첫째 날 오전 활동에서 샘물인들은 '내면 이야기'를 통해 그 속에 있는 자신의 가치관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아이들을 만납니다. 실제의 자신의 모습보다 훨씬 부족하게 자신을 인식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칭찬에 대한 잘못된 생각도 있습니다. 칭찬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 의해서 생겨납니다. 즉, 칭찬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경우는 그 사람이 못나서라기 보다는 칭찬해야 하는 사람이 칭찬할 만한 마음 상태가 아니거나 어떤 말로 칭찬을 할지 몰라 칭찬을 하지 않아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컨퍼런스 둘째 날 오전활동을 통해 샘물인들은 “내가 나를 칭찬하자!”, “칭찬의 Key가 되자!”라는 두 가지 도전을 받았습니다. 칭찬 사전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해당하는 칭찬의 언어를 찾아보고, 더 나아가 학급 친구를 칭찬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며 ‘좋았더라’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로를 건강하게 바라보기를 연습했습니다.



재능을 알아보기 위한 다양한 심리검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자신을 살펴보는 심리검사보다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재능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재능을 파악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과거에 직접 해보았던 경험을 살피는 과정이 재능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날 오전활동에서 샘물인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해서’, ‘즐겁게’ 몰입 했던 경험을 생각해보고 그 경험을 즐겁게 만들었던 특징을 찾아보면서 자신만의 은사를 발견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은사를 발견하는 것에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려는 노력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탁월해야 은사’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 하나의 역량은 탁월하지 않을 수 있지만 평범한 특징이 하나, 둘, 셋 그렇게 모여 조합을 이룰 때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한 나만의 은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전활동을 통해 샘물인들은 몰입했던 경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은사들을 나열해보고, 각자만의 독특한 은사조합을 통해서 섬기는 예수제자로써 하나님의 소명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34

서른 네 분의

멘토와의 만남 스케치

- | | |
|------------------|-----------------|
| 01 디스플레이 연구원 | 18 조직문화팀장 |
| 02 음성인식개발자 | 19 여성CEO |
| 03 웹 프로그램 개발자 | 20 비폭력대화상담 컨설턴트 |
| 04 반도체 개발자 | 21 대학축구선수 |
| 05 자동차 연구개발 | 22 전통공연예술기획자 |
| 06 건축 설계사 | 23 큐레이터 |
| 07 해군 장교 | 24 뮤지컬배우 |
| 08 검사 | 25 아나운서 |
| 09 중고등교사 | 26 성우 |
| 10 유아 교사 | 27 음향엔지니어 |
| 11 대학 교직원 | 28 찬양 사역자 |
| 12 상품 디자이너 | 29 드러머 |
| 13 시각 및 브랜드 디자이너 | 30 한의사 |
| 14 스포츠 마케터 | 31 산부인과 의사 |
| 15 마케팅 기획자 | 32 간호사 |
| 16 한류스타 마케터 | 33 (한/불)국제회의통역사 |
| 17 이벤트 및 행사기획자 | 34 제약 R&D 컨설턴트 |



05



10



15



19



24



25



26



31



32



33



34

샘물, 멘토를 만나다

2

큐레이터

큐레이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서 이 직업이 그리 쉬운 직업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현재하고 있는 미래 세계에 관련된 전시를 보며 흥미를 느낀 나를 발견하니 정말 이 직업이 나에게 맞는 흥미로운 커리어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어렸을 때부터 좋건 싫건 미술관을 많이 다녔던 덕에 전시에 관해 관심도 생기고 작가가 그 주제에 맞게 비언어적인 요소로 표현하는 것을 비평하고 관찰하는 것이 즐겁다고 느꼈다. 이번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내 비전과 꿈에 대한 연결점을 더 생각하게 되었고, 내게 정말 맞는 길인지에 대해 한 번 더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더 내 비전과 부름 받음을 위해 더 기도해야겠다.

글 _ 하은 (11학년 1반)

중고등학교 교사

멘토님을 뵈고 느낀 점은 정말 열정이 넘치고, 그만큼 준비도 확실하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었다. 교사다운 교사가 줄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현재 교사 쪽에 마음을 두고 있다. 하지만 내게 꼭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바라시며, 그것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 끊임없는 고뇌와 더불어 기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글 _ 김은주 학생(9학년 진리반)

제약 R&D 컨설턴트

11학년이기에 이렇게 멘토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이제 마지막 이어서인지 작년보다 더 긴장하고 집중해서 멘토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다. 난 생명과학 쪽의 직업을 생각하면 연구원들이 가운 입고 실험하고 해부하고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났다. 그런데 멘토와의 만남 속에서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다양한 활동과 일이 있음을 실감했다. 멘토님이 바이오패를 전공하고 법도하고 영어도 하고 그런 것들이 모여 지금 일을 하는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노는 데 허비하지 않고, 그렇다고 조금하게 길을 결정하지 않고 다양하게 경험을 하면서 나 자신을 준비해야겠다.

글 _ 이예진 학생(11학년 1반)



음향 엔지니어

스튜디오에 들어가자마자 압도되었다. 3면을 가득 채운 장비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레코딩룸, 그리고 멘토님의 외모에서 풍기는 전문가적인 분위기. 그걸로 체험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멘토님의 이야기와 직접 녹음해 보는 체험은 기대했던 것을 훨씬 넘어서게 했다. 음반 작업 때 돈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한 가치로 선택하신다는 멘토님의 모습에 참 멋있었다. 멘토님의 확고한 직업 정신이 존경스럽고 닳고 싶었다.

글 _ 최찬(10학년 2반)



마케팅 기획자

멘토님이 워낙 꼼꼼히 답변을 준비해 놓으셔서 더 알차게 진행이 되었다. 가장 좋았던 것은 '솔직한 답변'이었다. 광고회사가 정확히 어떤 일을, 어떤 과정을 통해 하는지, 또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요구되는지 정말 솔직하게 들을 수 있었다. 광고기획은 기획, 분석, 미술 등을 넘나드는 일이기에 각 분야의 전문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지식이나 능력이 있는 멀티 플레이어야 한다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끊임없이 제품 관련 정보를 모으고, 공부한다는 멘토님이 정말 존경스러웠다. 멘토님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나도 끝까지 책임질 수 있고,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일을 꼭 만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글 _ 신의진 학생(11학년 2반)



성우

중학교 때 처음 가지고 한동안 관심과 열정을 쏟으며 파고들었던 성우라는 직업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미술로 진로를 튼 터라 성우에 대한 생각을 조금은 접고 있었는데 다시 돌아볼 수 있어 좋았다. 강의를 들은 것도 좋았고 공채 시험에서 쓰이는 단문을 가지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연기를 해본 것이 정말 재미있었다. 글을 읽으며 연기하는데 얼마나 재미있던지!

멘토분께서도 미술을 전공하셨다는데, 이러한 나의 관심과 적성이 미술과 언젠가 연결될 수 있을 믿고 싶다. 누가 알겠나? 내가 미래 나와서 성우가 될지! 멘토분께 정말 감사했다.

글 _ 임한결 학생(11학년 2반)



디스플레이 개발 연구원

멘토님이 많은 경험을 하라고 하셨는데 당연한 말이지만 내게는 나름 크게 들려왔다. 솔직히 지금 고2 시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런데도 뭔가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일단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 읽기, 그리고 다른 방법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찾게 되었다. 사회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인간관계라 하시니 낮가림이 있는 나로서는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숙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시간을 통해 경험에서 온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귀중한 것인 것을 알았고 나도 누군가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글 _ 강상원 학생(11학년 2반)



산부인과 의사

의사가 되는데 필요한 것을 물었을 때 선생님은 '사람에 대한 애정'이 먼저고 학문적 소양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개인적으로 의사라는 직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확신이 선 것은 아니라서 좀 더 다양한 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인생 선배로서 의미 있는 답변을 주셔서 좋은 시간이었다. 이미 의사가 외부에서 보는 것 이상으로 힘든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도 섬길 수 있는 자리이기에 이를 위해 노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며, 어떤 일을 하든지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갖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가고 싶다.

글 _ 조성은 학생(10학년 1반)



조직문화팀장

멘토님이 일이 많으셔서 원래 1시간 정도 힘들게 시간을 내주셨는데 2시간 가까이 만나주셨다. 직업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상담도 해주셨다. 이번 컨퍼런스 말씀에서 공부를 왜 하나냐는 질문을 받고 생각이 많아졌다. 그런데 멘토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묻어 두지 않기 위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의 위치에서 후회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람, 학생은 공부와 자신의 역할에 성실한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해답을 얻게 되었다. 너무 좋았고 정말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했다.

글 _ 전지현(9학년 진리반)



상품 디자이너

우리가 만난 멘토는 내가 교보문고 핫트랙스나 10X10 매장에서 구경하며 예쁘다고 했던 바로 그 상품들을 디자인하신 장본이셨다. 만나서 우선 너무 반가웠고 신기했다. 같은 꿈을 꾸고 직접 그것을 이루신 분을 만나 보니 묻고 싶은 것도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게 됐다. 그리고 답변을 들었다. 답변을 하나씩 들을 때마다 나의 꿈도 구체적이게 된 것 같았고, 더 현실적이게 되었다. 더 꿈에 다가선 느낌이 들어 감사했다.

글 _ 강정서(10학년 4반)



시각 디자이너

멘토님을 만난 후 정말 내 꿈에 대해 자신감이 높아졌고 무미건조하게 '아 그냥 패션해야지' 했던 생각들에서 이제는 '아 이제는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그것에 대해 전문가가 될 때까지 노력하고 그런 자세를 갖자!'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다. 해보고 싶은 것도, 그것에 대한 열심도 생겼다. 멘토님, 감사합니다!

글 _ 이현우(11학년 2반)



Job shadowing

멘토 직업현장 탐방

동시통역사(편혜원 멘토)

글 _ 이혜민 학생
(10학년 3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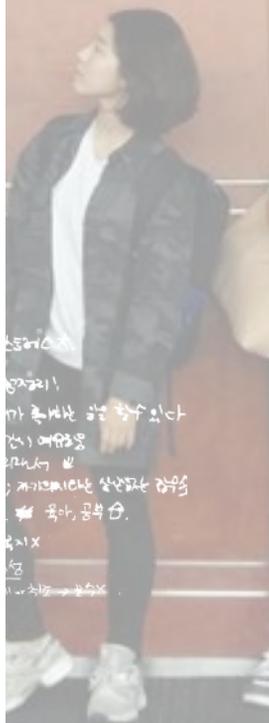
멘토님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주시고 감사하게도 음료도 사주셔서 생각보다 편한 분위기로 시작했다. 멘토님은 국제회의 통역사로,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이 다. 준비해오신 PPT로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다. 나는 동시통역만 알고 있었는데 통역의 종류에는 총 6가지나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 뒤로 자격, 장단점, 회의하신 사진 등 여러 가지를 설명해주셨다. 전공, 대학과 관계없이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하면 자격이 주어지고, 할 수 있는 언어는 3개쯤 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통역사는 지적 호기심을 일상 속에서 갖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 하셨다. 프리랜서 통역사는 시간의 자유와 지루할 틈 없이 늘 새로운 주제로 끊임없이 배울 수 있음이 가장 큰 장점이라 볼 수 있지만, 반대로 후생복지가 보장이 안 되고, 불안정성이 단점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멘토님은 일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버시는 점이 만족스럽다고 하셨다. 그 후 우리의 질문을 귀 기울여 들어주신 후 통역사가 된 동기, 신앙생활, 임금, 미래유지 가능성 등 구체적이고 많은 내용을 친절히 말씀해주셨다. 말씀하신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 직업과 진로를 선택할 때 보수나 다른 그 무엇보다도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 기억에 남는다. 또한, 자신은 현재 국제회의 통역사로서 사는 삶이 매우 행복하고 기쁘다고 하셨다.

자신을 통해 소통이 이루어지고 상황이 해결되거나 진행되는 것이 재미있고 보람차며 즐겁다고 하셨다.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를 나눈 후 인터뷰는 끝났다. 이번 체험을 통해 멘토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좋아하고 행복한 일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우리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다. 멘토님의 초대로 4년에 한 번 열리는 '2016 세계 기록 총회'에 참관하게 된 것이다. 그 날 아침은 평소와 다르게 학교가 아닌 서울 코엑스로 향했기 때문인지, 국제회의를 참관한다는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설레었다. 새벽같이 지하철을 타고 코엑스에 도착해 멘토님을 만나 이번 회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었다. 그 후 멘토님께서 통역하시는 공간에 들어가 구경하게 되었는데, 내가 생각하던 것과는 무척 달랐다. 전에 들었을 때는 그 방을 통역사들끼리 '담장'이라고 부른다고 하셔서 많이 좁고 답답할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깨끗하고 분위기 있었다. 또 혼자서 통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통역사 동료분과 함께 시간 단위로 돌아가면서 하신다고 하셨다. 그 방 복도에는 멘토님 담당인 프랑수아 외에도 중국어, 아랍어, 일본어, 독일어 등 다양한 언어로 통역하는 방들도 있었다. 멘토님 말씀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통역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셨다.

우리는 주요연설을 들으러 강당에 들어갔다. 들어가기 전 각자 통역기를 하나씩 지급해준 것이 새로웠다. 처음 연설은 중국어로 진행되었다. 받은 통역기를 사용하여 약 7개 국어로 채널을 바꾸면서 들었다. 하나의 연설을 다양한 언어로 들으니 신기하고 재미있기도 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즉각 즉각 바로 통역하시는 통역사분들이 대단하고 존경스럽게 느껴졌다.

다음 연설은 네덜란드의 저명한 박사님의 연설이었는데 '하멜표류기'에 관한 내용이었다. 마침 성경수업 때 하멜에 대해 배웠기 때문인지 배경지식이 있어서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다. 두 번째 연설이 끝나고 우린 한 층을 내려가 기록 관련 박람회, 전시회를 구경했다. 신기한 발명품들과 우리나라의 기록 역사 등을 볼 수 있었다. 또 몇 가지 체험하며 몸으로도 기록 역사를 느껴보았다. 더 보고 싶고 알고 싶었던 것들이 많아서인지 다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아쉬웠다. 하지만 이렇게 큰 국제회의를 참관하여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통역사에 대해 더 알게 되어서 좋았다. 멘토와의 만남 시간에 더해 생생한 직업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해주신 멘토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4

샘물, 인턴이 되다

KAIST 경영대학원
대외협력실(홍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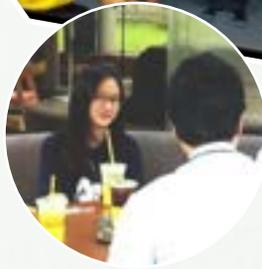
글 | 손가영 © 김준수 & 김재환 (E) 학생

Intern 김재환 학생(11학년 1반) | 인턴십 날이 밝았고, 새벽 6시 30분 어정역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 홍릉에 있는 KAIST 경영대학원 캠퍼스로 향했다. 도착한 곳은 대외협력실. 아직 여기가 어디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몇십초 단위로 끊임없이 들리는 영어, 복도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이 돌아다니고 그들의 요청에 능숙하게 답하시는 교직원분들을 보면서 비로소 이곳이 KAIST라는 사실이 실감났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대학의 모습 중 하나였지만, 눈 앞에 펼쳐지니 마냥 신기했다. 우리에게 맡겨진 첫 번째 미션은 KAIST 동문에게 보내진 소식지 반송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단순한 엑셀 작업이었다. 점심 후, 담당 선생님의 안내로 현재 KAIST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계신 한 분 형을 만나게 되었다. 카페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형은 우리의 진로와 삶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다. 난 이 시간이 정말 좋았다. 대화 가운데 조금 더 나의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었고,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었다. 이런 멘토링 외에도 평소에 내가 해보지 못했던, 할 수 없었던 경험을 갖게 되었다. 난생처음 인도사람들이 발표하는 프리젠테이션도 들었고, KAIST 아프리카 TV에도 출연했다. 내가 언제 KAIST 형들의 리스트를 보면서 엑셀 작업을 해볼 기회가 있을까? 이번 인턴십은 정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얻은 것이 너무 많았던 시간이었다.

Intern 김준수 학생(11학년 2반) | 혹시나 인턴십을 하며 실수하지 않을까 또 버스를 놓쳐서 실수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들로 긴장되었다. 평소보다 1시간 40분 정도 일찍 일어나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지만, 눈앞에서 차를 놓쳤다. 감사하게도 길이 안 막혀 예상보다 일찍 도착할 수 있었다.

인턴십에서 가장 기억나는 것은 박사과정 형과의 대화였다.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며 내가 꿈을 위해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하는지를 느꼈고, 동기부여도 많이 되었다. 두세 시간 정도 얘기를 나누다 도서관으로 이동해서 석사, 박사과정 학생들이 쓴 논문들을 보게 되었다. 다시 한번 더 진로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인식하게 되었다. 퇴근할 시간이 되었지만, 이곳에서 더 경험하고 싶은 마음에 모두 자진해서 9시까지 야근(?)하기로 했다. 인도 교환학생들의 수료증 정리, KAIST 인터넷 방송 게스트 출연을 하고 집에 돌아왔다. 선생님 차를 타고 집에 오니 밤 11시 30분. 몸은 피곤했지만, 앞으로 나의 미래를 위해, 내가 당장 해야 할 것이 학업에 집중하는 것임을 혼자 되새기게 되었다. 올해 진로체험은 정말 좋은 동기부여와 경험을 나에게 준 것 같아 정말 좋았다.

대외협력실에 계시는 교직원분들은 바쁘신데도 너무 잘 대해주시고, 친절하셔서 놀랍고 감사했다. 이곳에 교환학생으로 온 인도 학생들에게 줄 상장을 끼우고 정리하는 일을 했다. 직접 해보니 너무 뿌듯했다. 이곳은 외국인들이 많고 거의 모든 수업이 영어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영어, 중국어를 정말 잘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학생들은 모범생이면서도 활발하고 유머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나도 내 삶을 즐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짧지만 오후 시간 진행된 체험을 통해 나의 꿈을 누군가에게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알게 되었다. 이번 체험은 나를 한층 성장시켜 준 것 같아 감사드린다. 글 _ 손가영 학생(9학년 복음반) *가영이는 중학생이어서 오후 프로그램만 참여했습니다.



참여해주신 **34**분의 멘토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Mento List | 이중희, 노재근, 손진광, 임전식, 최병도, 이대형, 이민우, 최기식, 임종화, 송지연, 정나래, 김진현, 이준홍, 박성호, 이건훈, 김세영, 양영, 강지예, 허미영, 박재연, 김경록, 박선미, 박가희, 송임정, 박재홍, 허강원, 강경균, 김인식, 홍성현, 신철균, 양정인, 권신영, 편혜원, 박은진 멘토

Thank
You



샘물의 꿈을 나누는 15분 시간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 글 _ 홍중호 졸업생 (1기,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2학년)

반갑습니다. 샘물 1기 졸업생 홍중호입니다. 학교에서 '매일, 조금씩, 천천히',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섬기는 예수 제자' 이런 말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 말들은 하나같이 옳은 얘기이고 우리는 주어진 몫을 찾고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면 참 막연합니다. 그런 여러분께 저는 '생각하고 경험하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생각을 올바르게 바꾸고 싶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로 진학해 콘텐츠를 통해 그 일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저의 비전은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저의 삶을 뒤 돌아보면서 제 삶의 방향성이 어떠한지에 대해 매일 생각하고 고민하고 탐구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막연하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고 의료선교사라는 꿈도 가졌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경제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의학보다는 사회과학 분야에 더 흥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경제'를 잘 굴러가게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마치고 원서를 넣을 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은 건 여전히데 경제학도가 저랑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을 고민한 끝에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하는 것'이 제 비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

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방향성이며 현재진행형입니다. 삶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이 비전을 알아채기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며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나게 되는 세상이 점차 넓어질수록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가치관을 접하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딱 가르기 어려운 상황들도 많아지고 때로는 크나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 떠있다가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잠잠할 때도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성실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기 이전에 여러분이 세상의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성실은 단순히 일을 열심히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은 거짓이 없고 참된 성품, 즉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속이는 일이 없어야 하며 여러분들의 삶이 참되도록 하나님께 붙어있어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때로는 쉽고 때로는 어렵게 다가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생각할 줄 아는 힘, 하나님께 붙어있을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은 근육을 단련하듯이 오랜 시간 훈련에 걸쳐 만들어집니다. 학교에서 숙제를 성실히 하고, 말씀 묵상할 때 조금 더 생각해보고, 기도에도 더 집중해보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만날 넓은 세상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매일
헌신히 살수있
도록 하는
최고의 비결
정말
예수님께
예수께
예수께

요리를 맛있게 하는 5가지 방법

1. 하나님이 만드신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다.
2. 미각에 조화롭고 풍부하게 느껴지도록 조리한다.
3. 오감에 생기가 느껴지도록 한다.
4. 제철 식재료를 사용한다.
5. 하나님이 조리하시도록 한다.

요리를 통해 배운 잘사는 방법 5가지

1.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사명과 은사를 따라 산다.
2. 인생의 쓴맛, 단맛, 매운맛, 신맛, 감칠맛을 누린다.
3. 내 몸을 보호한다.
4. 비교하지 않는다(나 자신의 특별함을 존중하자).
5. 하나님께 맡긴다.

요리를 통해 배운 잘사는 방법

글 _ 김동규 셰프(샘물급식, 8학년 김지은 학부모님)



for people, for Christ

글 _ 김재형 졸업생 (1기,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부 2학년)



섬기는 예수 제자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미디어, 그 자체보다 메시지가 중요하듯이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는 메시지가
주변 사람을 위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샘물의 과학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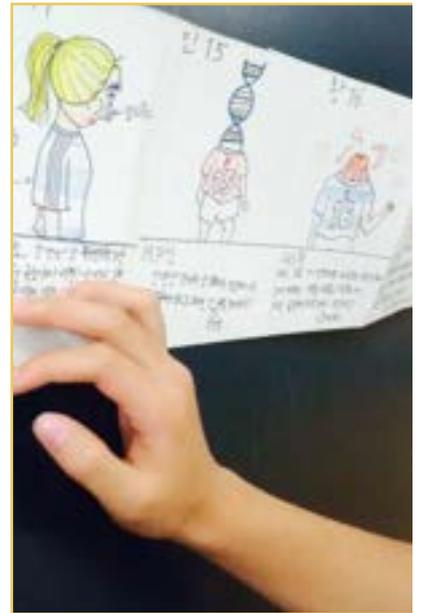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1:1)

샘물에서 제자들과 함께 과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얼마나 벅차고 뜨겁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샘물의 과학은 우리가 사는 피조세계에 하나님께서 어떤 과학적 원리와 법칙과 질서를 심어 놓으셨으며, 그것으로 인해 이 세상이 어떻게 운행되도록 하셨는지 하나님의 숨씨를 이해하고 경험하며 탐구합니다. 그래서 샘물의 과학 수업시간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창조에 담긴 하나님의 기쁨만을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창조세계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무너지고 파괴됐는지 살펴보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도 알아갑니다. 그리고 피조세계가 다시 회복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회복을 위해 어떤 실천을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또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과학을 통해 어떤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합니다.

파커 팔머가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라고 했지요. 과학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수업을 통해 배운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아낼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샘물의 과학 교육과정은 수업을 통해 기본 교과 내용을 충실히 공부하되, 가능하다면 최대한 많은 실험과 탐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과학에 대해 더 흥미를 느끼고, 직접 경험하며, 탐구하는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샘물의 교육철학에 맞게, 매일, 조금씩, 천천히 성실한 일상을 세우는 제자들의 삶을 격려합니다. 50%에 달하는 수행평가는 평소의 수업 태도와 다양한 프로젝트와 실험 등으로 진행되는 일상 수업에서의 참여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학기마다 진행되는 프로젝트 수업은 은사가 다양한 아이들이 두레를 이루어 각자의 역할을 찾아, 배움의 즐거움을 함께 나눕니다. 환경 프로젝트, 소화 프로젝트, 주기율 프로젝트 등을 통해 교과서 너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와 그 피조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봅니다. 프로젝트와 실험, 놀이로 알아가는 과학 수업을 통해, 샘물의 제자들은 어렵고 암기해야 하는 과학이란 생각에서 재미있고 즐거운 과학을 배워갑니다. 특별히 과학에 대한 은사와 재능



- 01. 7학년 동물세포, 식물세포 관찰
- 02-03. 8학년 우리들만의 주기율표
- 04. 7학년 여름방학 특강
(과학실험반-아세틸렌의 연소와 폭발)
- 05. 11학년 생명화학 II (동물세포, 식물세포 포스터 제작 프로젝트)
- 06. 7학년 잔디인형 만들기



01



04



05



02



06



03

이 있는 친구들은 학기 중과 방학에 있는 과학 동아리와 특강을 통해 더 깊고 다양한 수업을 들으며 자신의 진로를 탐색합니다.

샘물의 과학과에는 현재 3명의 교사가 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세움샘(윤지현 선생님, 물리 전공), 사랑샘(주세진 선생님, 화학 전공), 라르샘(임성도 선생님, 생명과학 전공) 이렇게 3명의 교사가 푹푹 문쳐서 샘물의 과학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각자 은사와 재능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장단점도 모두 다르지만, 서로의 다름이 학과 내에서는 풍성함으로 발현됩니다.

이렇게 동역하며 세워가는 저희 과학과의 올해 중점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적 세계관 수업 연구입니다. 매주 과학교사들이 함께 모여, 과학 교과를 성경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WCA의 과학교사들과 ACTS의 교수님들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셔서, 훨씬 수월하게 성경적 세계관 과학 수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중학교 교육과정을 샘물에 맞게 재구성하여, 성경적 세계관을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점사항은 과학 프로젝트 동아리 활성화입니다. 먼저, 프로젝트 동아리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협동심이 길러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 지식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지식을 통해 삶에서 어떤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 여름학기에 10명의 친구가 모여 직접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해서, 드론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역량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욕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에게 맞는 수준의 목표를 잡고, 친구들이 서로 협력해서 노력한 결과, 이제는 1차 완성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곧 드론 만들기를 마무리 짓고, 가을, 겨울학기에는 적정 기술 중 하나인 햇빛온풍기를 제작해보려고 합



01



02



03



04

라르샘



04



06

니다. 전기의 도움 없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태양에너지를 활용하여 난방을 해결하는 장치입니다. 학생들이 햇빛온풍기를 통해서 자연 세계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많은 영감과 도전들을 얻게 되길 기대합니다.

세움샘



05



09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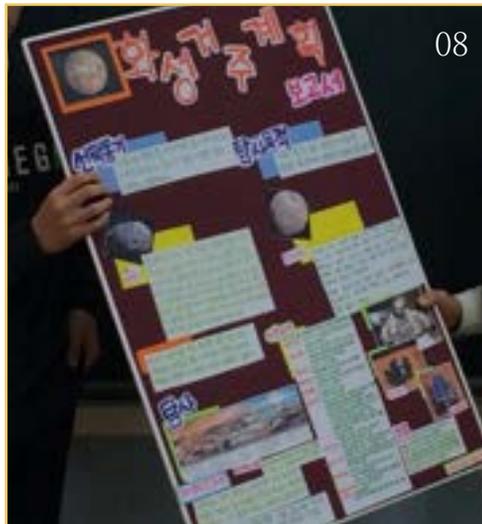
샘물의 과학 교과를 통해서 우리 제자들이 자연 세계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굴복하여 세상을 향해 섬김의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글 _ 임성도 선생님 (생명과학, 11학년 1반 담임)

윤지현 선생님 (물리, 7학년 진리반 담임)



07



08



10

- 01. 7학년 여름방학특강(과학실험반-돼지 심장 해부)
- 02. 10학년 생명과학 I(적정기술 조사 및 발표)
- 03. 8학년 과학(불꽃반응)
- 04. 과학과 회의(매주 수요일)
- 05. 7학년 여름방학특강(과학실험반 단체사진)
- 06. 7학년 과학(속도측정, 시간기록계)
- 07. 7학년 여름방학특강(과학실험반-힘의평형)
- 08. 9학년 과학(태양계 탐사 보고서 발표)
- 09. 7학년 여름방학특강(과학실험반-LED형광보드판)
- 10. 9학년 과학(소의 눈 해부)

01	05	09
02		
03	06	07
04		08
		10



Interview

사랑샘의 하루

별칭 '사랑' 샘의 의미는 —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삶을 변화시키고 유지하고 성장시킵니다. 모든 상황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제일 필요한 것 그리고 끝까지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제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샘물중고등학교에 오시게 된 계기는 —

대학원 졸업 후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하던 중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치듯 했던 모든 기회와 경험했던 모든 과정이 모여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샘물에 와서 제가 잘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하나님이 조금씩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겨주시는 사랑샘
(주세진, 10학년 3반 담임)을
만나보았습니다.



07:50 AM
교사복상



08:20 AM
교실복상



10:50 AM
수업

—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샘물의 교사란 —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 결국 교사는 어떠한 교육적 스킬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또 많은 관계 속에 있는 교사의 만족감의 근원이 사람의 반응이 될 때 낙심하게 됩니다. 모든 말과 행동의 이유가 하나님이 될 수 있게 끊임없이 자신과 하나님을 바라 보는 샘물의 교사.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샘물의 교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 수업을 준비하며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다면 —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씁니다. 과학은 외울 것이 많고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특히 화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막연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낯설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상식적인 그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려고 노력합니다. 정의를 통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실험과 영상, 그림을 통해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수업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성장하고 사물을 대하는 마음이 성장하고 생각하는 힘이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샘물중고등학교의 특징은 —

다니고 싶은 학교!! 샘물중고등학교에 와서 많이 하는 생각 중 하나는 '나도 여기 다녔으면 참 좋았겠다.'는 것입니다. 매일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복상과 예배, 수업에서 학생들의 작은 눈빛 하나도 놓치지 않는 교사의 마음가짐과 헌신, 한 명 한 명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가정 방문과 상담 시간,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길러주는 자기주도학습, 청소년기에 생각하고 경험해야 할 것들과 시간을 제공하는 컨퍼런스와 체험학습, 공동체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비전트립, 그리고 크고 작은 문제들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생활 등.. 영성, 인성, 실력의 균형이 잡힌 교육과정이 샘물 학교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꿈과 기도제목이 있다면 —



매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 꿈이고 기도제목입니다. 일정과 조건들이 가득 차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일상에서도 매 순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싶습니다.



학년회의
학과회의

샘물의 영어교육

가을에 읽는 샘물영시 *English poetry*

8학년 아이들과 함께 영시를 2년째 배우고 있습니다. 화창한 어느 날 공책과 연필을 들고 교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시도 시골도 아닌 동백이라는 곳에서 도시를 주제로 시를 쓰고, 시화를 만 들고, 작은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우리의 공간 안에 채워진 사물과 사람의 표정을 읽어 갔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도 _ 안은경 선생님(영어, 8학년 사랑반 담임)

To people in the busy city

바쁜 도시의 사람들 —

황승민 학생(8학년 복음반)

Alice

On the hill of the city
cherry color blossoms are smiling
Buildings are laughing at her
What is she working for?

Lovely blossoms get beautiful
Finally her blossom landed to the ground
People stopped and looked what they found

She said,
to people in the busy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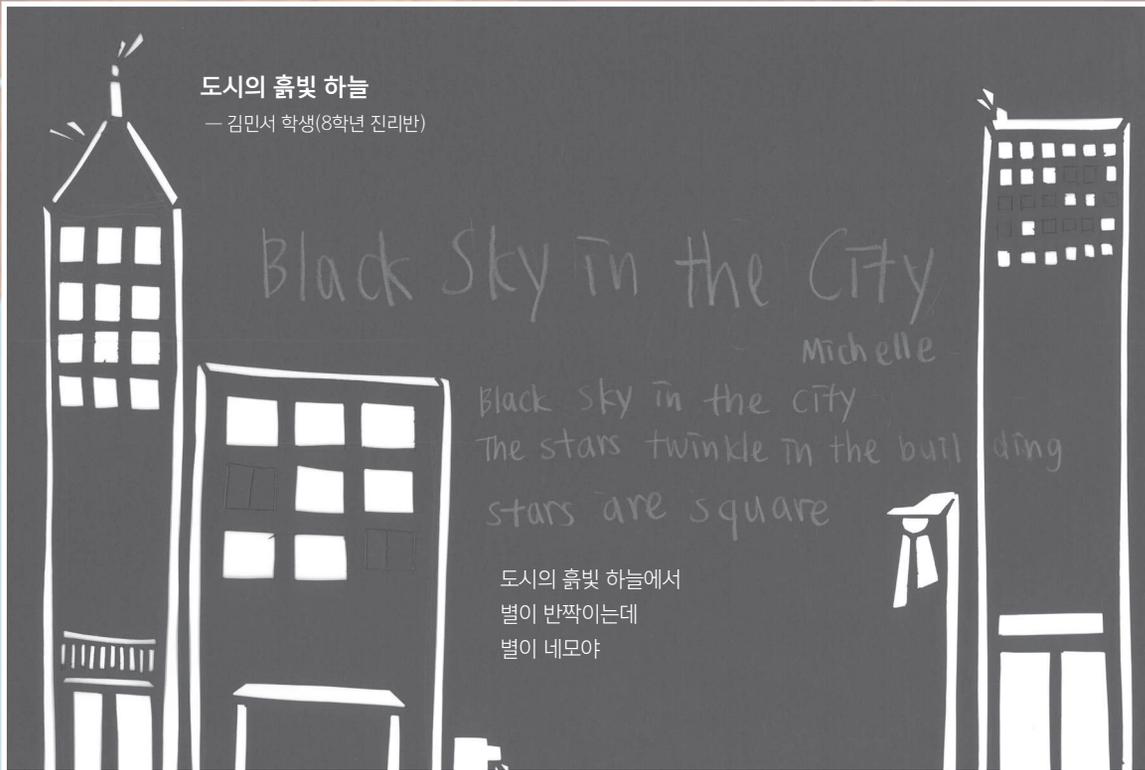
도시 언덕 위
분홍 벚꽃이 웃고 있어요
빌딩은 그녀를 보고 비웃어요.
저 위에서 뭐하는 거야?

벚꽃은 더욱 더 사랑스러워져 가요.
땅 위에 떨어진 그녀를 보자,
비로소 사람들이 멈춰서 그녀를 봐요.

그녀는 이렇게
바쁜 도시에게 말을 걸었죠.

도시의 흠뻑 하늘

— 김민서 학생(8학년 진리반)



Black Sky in the City

Michelle

Black sky in the city
The stars twinkle in the building
stars are square

도시의 흠뻑 하늘에서
별이 반짝이는데
별이 네모야

City
splendi
colorful
Inte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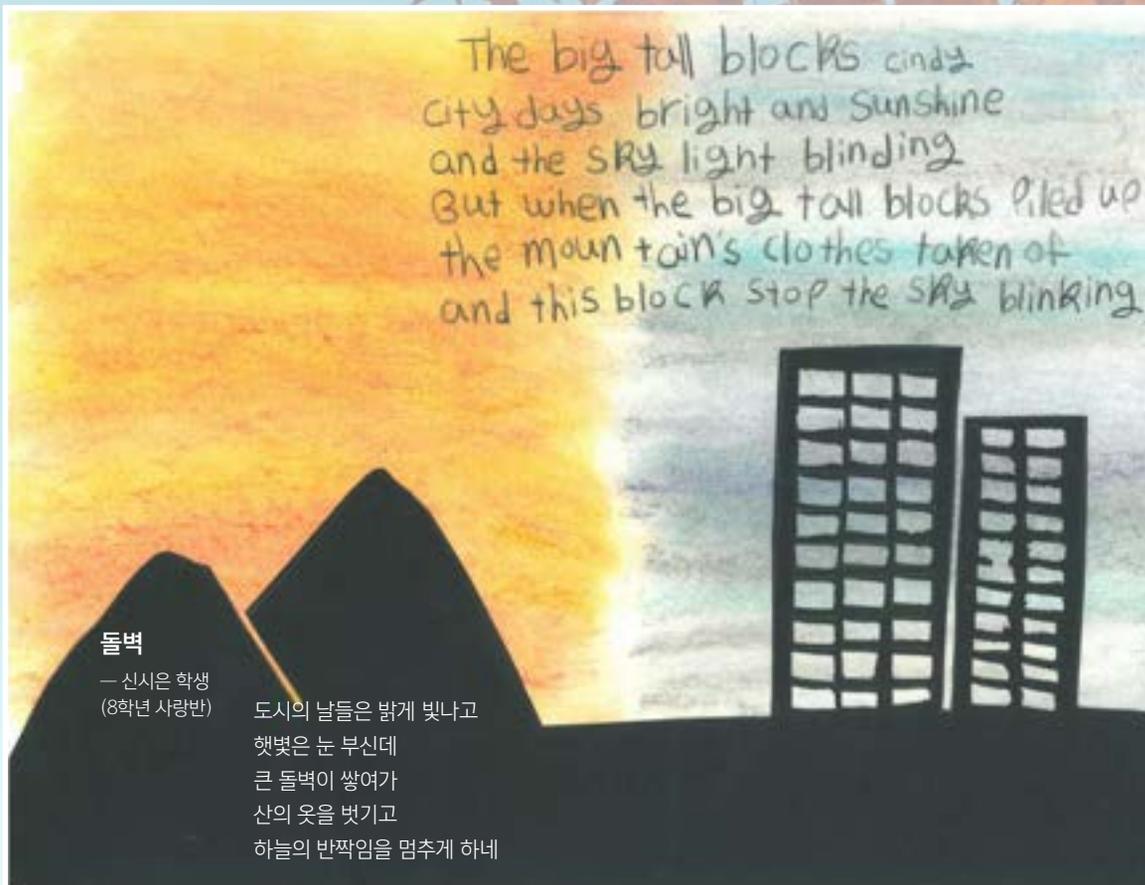
City is
stuffy
narrow
busy

The big tall blocks and
city days bright and sunshine
and the sky light blinding
But when the big tall blocks piled up
the mountain's clothes taken off
and this block stop the sky blinking

돌벽

— 신시은 학생
(8학년 사랑반)

도시의 날들은 밝게 빛나고
햇빛은 눈 부신데
큰 돌벽이 쌓여가
산의 옷을 벗기고
하늘의 반짝임을 멈추게 하네



City

도시 —
신하연 학생
(8학년 북음반)

Ellie

It's Joy
of buildings
lights
and attractions

도시는 기쁨
번쩍번쩍한 불빛
화려한 빛깔
나를 끌어당기네

It's Sadness
in the air
of street
people

도시는 슬픔
꽉 막힌 공기
비좁은 거리
바쁜 사람들



Call

Heidi Lim.

목소리

임하연 학생
(8학년 사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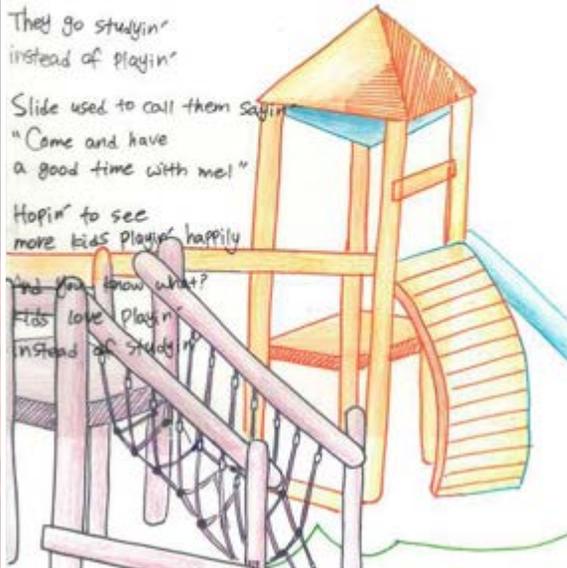
Kids aren't playin'
at the playground
nowadays

They go studyin'
instead of playin'

Slide used to call them sayin'
"Come and have
a good time with me!"

Hopin' to see
more kids playin' happily

And you know what?
Kids love playin'
instead of studyin'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없어요.
요즘은

공부하고 있어요
놀이 않고

미끄럼틀은 더 이상
이리와
나랑 놀자
하고 말하질 않죠.

놀이터에서
행복하게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싶어요.

그거 아세요?
아이들은
노는 걸 좋아해요.
공부 하는 것 보다.

pollution

공해 — 고병권 학생
(8학년 진리반)

Brian

pollution is disease
greed cause pollution
pollution cause disaster
vicious cyc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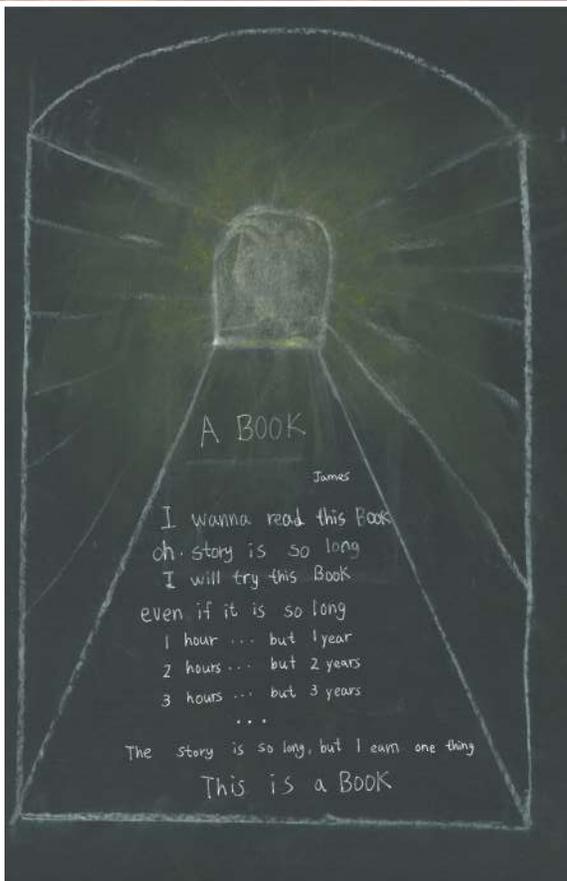
공해는 질병
욕심이라는 공해
재해를 낳는 공해
악순환

greed spreads its arms
all over the world
it never ends

욕심이 그 팔을
온 세상에 펼친다.
끝도 없이

greed cause pollution
pollution cause disaster
vicious cycle

욕심이라는 공해
재해를 낳는 공해
그 악순환



A BOOK

James

I wanna read this book
ch. story is so long
I will try this book
even if it is so long
1 hour ... but 1 year
2 hours ... but 2 years
3 hours ... but 3 years
...

The story is so long, but I learn one thing

This is a BOOK

책 — 강재원 학생
(8학년 북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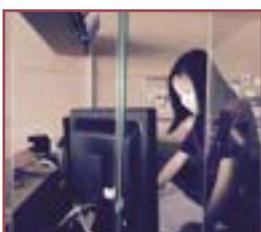
이 책을 읽고 싶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
그래도 읽고 싶다.
아무리 길지라도
1시간, 1년일지라도
2시간, 2년일지라도
3시간, 3년일지라도

이야기는 길지라도
난 이게
책이란 걸 알아



샘물의 연극수업

글 _ 이성희 선생님(연극)



봄여름학기에 처음으로 시작된 연극수업은 선생님이 가르치고 학생들이 배우는 곳이 아니라 선생과 학생이, 학생과 학생이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도전 받는 장이었다.

교육의 현장은 늘 그렇게 새로운 놀라움과 깨달음을 준다. 봄여름학기를 보내며 내가 느꼈던 것은 비단 아이들만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선생님과 학부모, 아이들과 함께 하는 우리가 모두 배우고 성장한다는 것이다.

봄,여름 연극반 <놀이의 공간- 연극놀이>

교육의 현장에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장을 연극 수업에서 마련해주고 싶다. 놀이 가운데 아이들은 사회성을 배우고, 표현력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솔직히 우리 아이들은 놀아야 한다. 그러나, 제대로 놀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놀라고 해도 놀 줄을 모른다.

교육 속에서도 신나게 놀 수 있도록 초반에는 연극 놀이 위주로 수업을 이어나갔다.

아이들은 처음에 어색해서 주저하기도 했지만, 점점 더 흥미를 느끼고 시도해보려고도 했다. 앞으로도 움직임과 역할놀이, 즉흥연기, 감정표현, 상황 만들기 등 다양한 연극놀이를 하며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아이들과 소통하고 싶다.

공동체 속에서 나의 책임감- 공연발표 | '나니아 연대기' 소설을 희곡으로 각색하여 예비중등과 7학년이 연극발표회를 했다. 쉽지 않은 작품이었지만, 해낼 수 있었던 것은 함께였기 때문이었다.

발표날짜는 다가오지만 연습을 하기에는 부족했던 수업시간, '짧은 시간에 너무 큰 시도를 했나'하는 생각과 함께 때론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아이들

을 위한 것인지 쫓기는 마음에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시간이었다. 그 가운데 힘을 얻은 것은 더욱 하나가 되어가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가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였다.

아이들 한명 한명이 다 주인공이고, 책임감을 느끼며,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배울 수 있게 연출, 조연출, 스텝, 배우 등 각자의 역할을 주었다. 그 과정에서 무거운 책임감에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었고, 따라주지 않은 친구에게 섭섭해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아이들은 기특하게도 자신의 할 일을 찾아가고, 친구들을 격려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무대 위에서 작은 하나가 모여 큰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에 함께 기뻐하고 박수를 쳤다.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만들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었다.

때론 부족하고 어설피더라도 웃으며 기억되는 연습과 연극 발표였으면 좋겠고, 이 작은 기억들이 하나하나 모여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더 큰 삶의 무대에서도 자기의 역할을 잘해나가는 자양분이 되기를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가을, 겨울 연극반 |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누며 창작극을 만들어 나가려 한다.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꿈이 뭐니? 기분이 어때니? 하고 싶은 말을 말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질문을 하면 아이들의 대답은 대부분이 “모르겠어요” 이다. 우리는 분명히 감정을 느낀다. 하지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또는 제대로 말하지도 못한다. 긍정적인 감정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고,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상대를 이해하게 되어 더욱 아름다운 우리를 만들게 할 것이다. 이 과정을 아이들과 함께 가정, 학교 등에서 겪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풀어나가고자 한다.

바로 우리들의 이런 이야기가 연극수업 교과서의 새로운 페이지들을 채워나가고, 희곡으로 펼쳐질 것이다.

s#1 교실을 오가며 마주치는 선생님들 반가운 얼굴로 “나니아 잘돼가요?” 그럴 때마다 “나니아가 자꾸 산으로 가요”라고 대답하며 잠깐의 농담에 웃다보면 긴장감이 풀린다.

s#2 연기하는 친구들을 위해 큐 싸인 하나라도 놓칠까 집중하는 스텝들을 격려하려고 등을 토닥여 주는데 웃이 땀으로 흥건히 젖어있다. “멋지다, 핫팅!!” 그러면 수줍은 듯 배시시 웃어주는 아이들이 귀하다.

좌충우돌, 샘물에서의 첫 연극수업은 참 고맙고 감동되는 순간을 떠올리게 한다.



졸업생이야기

누군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교사의 꿈

박세원 학생은 샘물 2기 졸업생으로
영지대 체육학부에 재학중이며 체육 교사의 꿈을 품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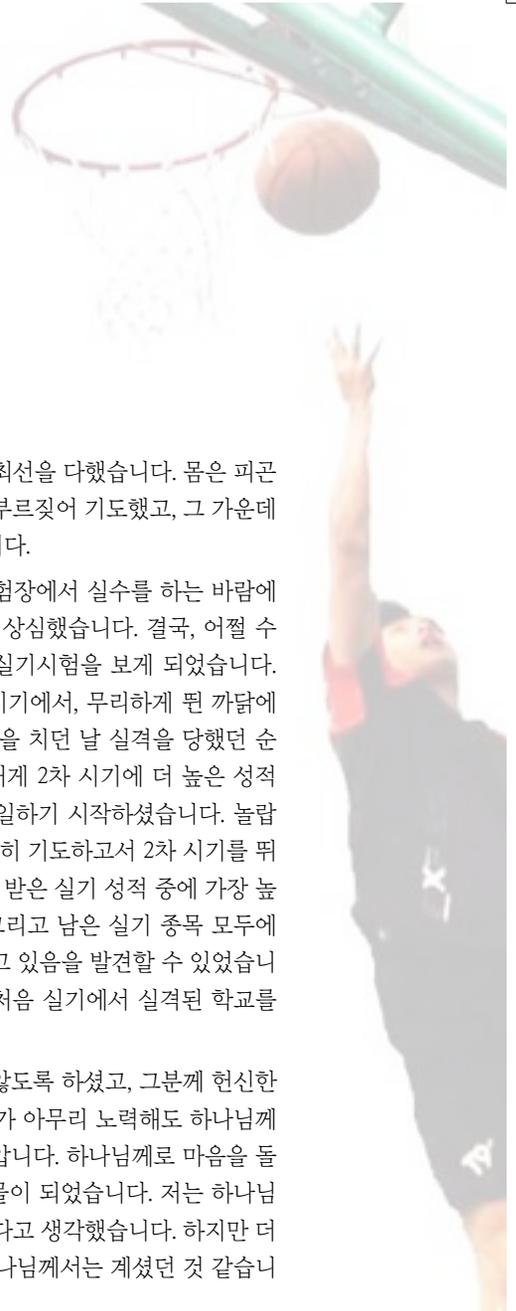
시간에 색이 있다면, 샘물학교에서 제가 흘러보낸 고1, 2학년 대부분의 시간은 잿빛인 것 같습니다. 철저히 악하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선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자리에서, 저는 줄곧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줄다리기를 하곤 했습니다. 학업에 성실하지도 않았을뿐더러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전혀 즐겁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 선생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채 많은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 걸핏하면 학교를 벗어나려고 했고, 수업 때마다 초점 없이 앉은 모습에 선생님의 걱정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잠들어 있던 때도 있었으니 말입니다. 저 스스로가 바른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탓을 환경에 돌리곤 했습니다. '나는 공부를 못해, 나는 부자가 아니야, 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 미래는 답이 없을 거야, 꿈을 가지면 뭐해! 되지도 않을 텐데!' 끊임 없이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자기연민은 저를 더욱더 어둠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꿈과 목표의식은 눈앞에 현실과 괴리감이 너무 커서, 특정 이들에게만 한정된 것이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쉽게 꿈꾸지 못하는지를 다른 이들은 모른다는 것이 화가 났습니다.

샘물의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안타까워하시고 끊임없이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을 옹아 맺던 생각들은 선생님들을 바라보는 시각마저 왜곡시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변화되면 선생님께서 인정을 받으실 거니 나에게 이런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 속에 갇혀 있었기에 누구의 말도, 조언도, 관심도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지칠 만도 하셨을 텐데, 참 끈질기셨습니다. 답임 선생님께서는 계속 저의 마음을 살피셨고, 저를 이해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복도에서, 교무실에서 마주치는 선생님들의 말씀은 그저 인사치레로 던지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선생님들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제 마음에서 튕겨 나갔던 선생님들의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식처럼 안타까워하시고 이해하시려는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은 조금씩 열렸고, 제 안에 한 가지 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나처럼 무너진 마음을 안고 사는 아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받은 도움과 은혜를 갚고자 저와 비슷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잘 이끌어주는 교사가 되어보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체육을 좋아했기에 체육 교사에 대한 꿈이 더욱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고2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꿈이 생기자 지금까지 흘러보냈던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쉽지는 않았지만 굳은살처럼 박인 불성실함을 벗어 던지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수업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항상 중보 해주시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며 어느 고3들처럼 계획을 세워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체육 학원과 학교를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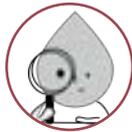
가면서는 그 전까지 놓친 시간을 주워 담아 보고자 매일같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주일이면 늘 예배당에 가서 기도시간마다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 가운데서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극복해 낼 수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애써 준비했던 그 결전의 시간, 대학입시 첫 실기시험장에서 실수를 하는 바람에 실격을 당했습니다. 가장 가고 싶었던 학교였기 때문에 크게 상심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나 하는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중 두 번째 대학 실기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멀리뛰기 종목 1차 시기에서, 무리하게 뛰 까닭에 균형을 잡지 못하고 땅에 손을 짚어 버렸습니다. 첫 실기시험을 치던 날 실격을 당했던 순간이 겹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뛰기 특성상 대개 2차 시기에 더 높은 성적이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3초도 채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이 가는 동안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서 2차 시기를 뛰니, 저는 '만점'이라는 믿기지 않은 말을 들었습니다. 태어나서 받은 실기 성적 중에 가장 높은 성적이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실기 종목 모두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기대와 평안함이 싹트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실기 종목에 만점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처음 실기에서 실격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두 학교에 모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결국 제 기도와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분께 헌신한 것들이 상급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지나간 시간 속에 제가 흘린 땀은 곧 기쁨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멀어졌을 때 이미 하나님의 손을 놓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나를 찾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한 순간 바로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명지대 체육학부에서 체육교사의 꿈을 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2 때까지의 제 모습을 아는 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원이가 그 학교 다니는 것은 기적이야!' 그러면 저는 그 부정할 수 없는 말 앞에서 그저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인 것은 그런 결과를 넘어 제 마음과 삶을 대하는 자세의 변화입니다. 문득 문득 예전의 걱정과 자기 연민, 내 안에 발견되는 연약함에 마주할 때 누군가에 화살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이 감정에 매몰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제 인생이 어디로 향할지, 한 치 앞도 모르지만 더는 예전만큼 불안하지 않습니다. 저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기대해 주시는 샘물의 선생님들과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리고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오늘 저에게 주어진 목적 있는 일상을 힘있게 살아내게 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넘어질 때마다 격려해주시고,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부모님과 모든 선생님, 특히 이찬형 교장 선생님과 권문영 상임이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상세움 맛보기

말 - 이찬형 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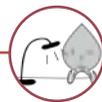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 사도 바울 (고전 4:5)

매일 아침 등교 후 샘물인들의 첫 일과는 '복상'입니다.
학부모님들도 함께 매일 아침 복종 있는 묵상으로 나아가시도록 돕기 위해
샘물에서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복상세움' 강의를 열고 있습니다.



복상의 명칭 |

'복상'은 '복종이 있는 묵상'의 약어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의 정신을 알고 따라 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과는 사뭇 다
릅니다. 몇 년에 누가 태어났고, 어느 성경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아는 것은 내가 목숨을
걸고 의존하며 사는 하나님과 연결해주시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심장 박
동 소리를 듣게 될 때,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안전함을 경험하게 됩니
다. 환경이 편안한 데도 왠지 모를 불안함이 밀려올 때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상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도구입니다.



첫 번째 복상 - 조명기도 |

복상의 맨 처음에 조명확보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조명기도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
님께 의존하여 복상을 시작하는 첫걸음이자, 마지막 걸음입니다. 복상이 깊어지는 동안, 조
명기도가 깊어질 것입니다. 말씀의 각성과 복종의 힘은 오직 성령의 조명 하심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도록 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세요. 성경으로
사건과 사물을 묵상할 때도 영적 각성을 주세요.”



두 번째 복상 - 말씀받기 |

말씀받기는 출입구 찾기와 암송구 만들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복상을 말씀받기
로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생기는 역동성 때문입니다. 성경을
복상한다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나를 읽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를 읽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보는 게 아니라, 받는 것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
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읽으시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읽으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지, 성경
의 의도대로 귀를 기울이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읽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일하심의 핵심은 말씀을 먹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요6:38).

출입구찾기 | 출입구는 복상하는 본문에
서 3가지 출입구 돋보기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 '사람을 칭찬
하고 있는가?' -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있
는가?'



암송구(및 축복어구) 만들기 | 암송구는
찾은 출입구를 단번에 암송할 수 있는 크키
로 줄이는 작업입니다. 암송구는 오늘 묵상
한 말씀을 어느 때나 쉽게 떠올릴 수 있게 합
니다. 또한, 내가 초점을 잃을 만한 분주함이
나 바쁜 일과에 노출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위로가 필요하거나 누군가를 격려해주어야
할 때 이 암송구는 힘을 줍니다.

출입구로 정한 말씀을 암송구로 만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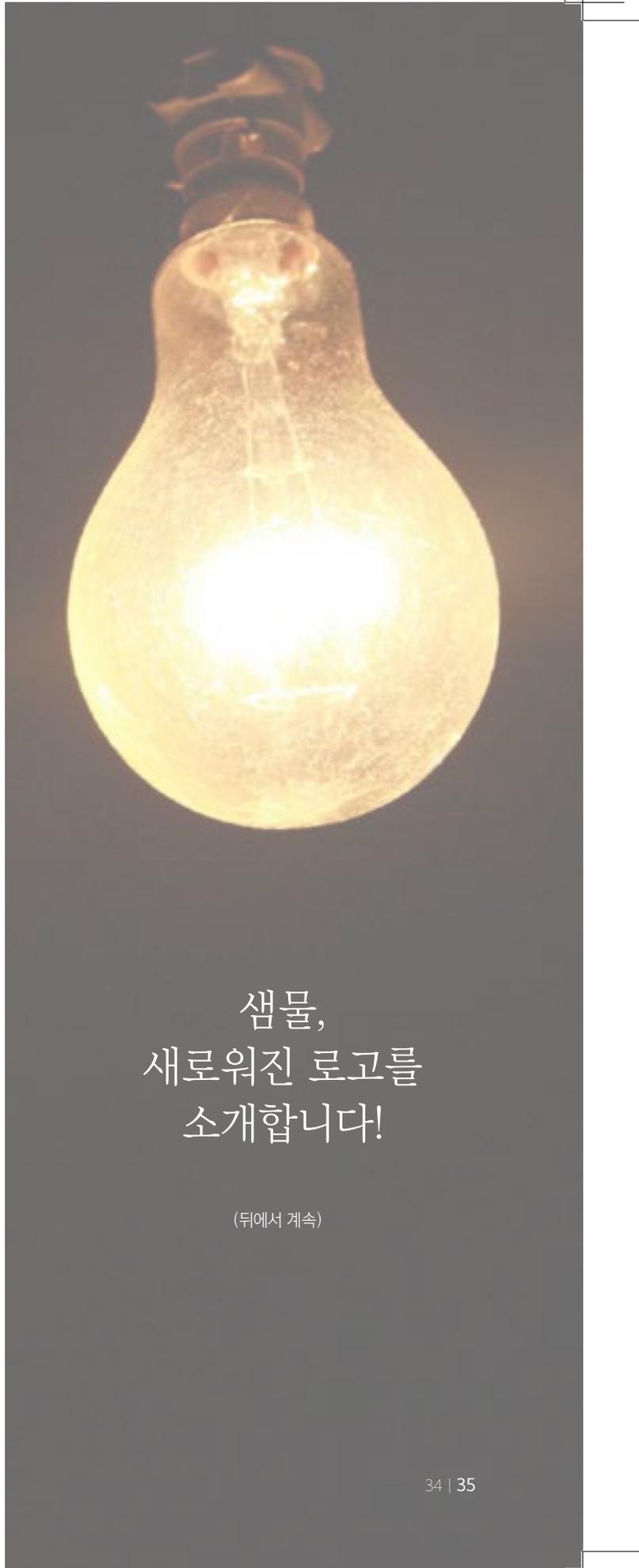
- 1) 자신의 말로 요약하지 마세요.
- 2) 출입구 전체를 암송구로 쓰지 마세요.
- 3) 출입구로 택한 성구를 떼어내세요.
- 4) 그 암송구를 여러번 소리 내 읽으면서 외우세요.
- 5) 다 외웠다면, 이제 외운 말씀을 다섯 번 천천히 소리 내어 읽습니다.
- 6) 이제 그 암송구를 자신이 자주 열어보게 되는 곳에 메모해두십시오. 말씀 위에 하루를 세울 때, 분주함과 바쁜 일과 속에서도 초점을 잃지 않고 일상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복상 - 계획기도하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계획을 세운다면, 그 계획이 이루어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기초한 일상을 살 때,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중에 살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능력과 지혜를 주세요”

복상이 깊어진다는 것은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깨달음을 삶으로 살아갈 때, 지혜와 힘이 세집니다. 객관적 진리를 주관적으로 영접할 때, 지혜와 힘이 세집니다.



샘물,
새로워진 로고를
소개합니다!

(뒤에서 계속)

샘물을 담아내는 새 로고를 소개합니다!



샘물중고등학교



샘물학교



샘물중고등학교



은혜샘물유치원·초등학교

'샘물'의 초성인 '사'와 '물'을 모티브로 제작된 샘물중고등학교 로고 기억하시죠?

지난 8년여의 역사 속에 샘물중고등학교를 대표하는 심볼로 자리잡았지만 샘물의 지향점을 오롯이 담아내기에는 여러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붓 글씨(캘리그래피)로 표현되어 다른 문서와 어울리기 어려웠고, 글자크기가 들쭉날쭉하여 차지하는 면적대비 가시성이 떨어지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올해 은혜샘물유치·초등학교가 개교하면서 '샘물학교'의 통합 로고에 대한 필요가 생겼습니다.

샘물중고등학교, 은혜샘물유치·초등학교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넘어 '섬기는 예수 제자'의 동일한 지향점을 향해 함께 협력하며, 보다 긴밀하게 연계된 교육을 추구하고자 통합 로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리더십과 실무진,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며 샘물의 정신을 담은 새로운 로고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로고에 담긴 핵심 키워드는 '하나됨'입니다. 가정, 교회, 학교가 섬기는 예수 제자의 꿈으로 하나되어 동역함, 영성, 인성, 실력 어느 하나도 소홀히 여겨지지 않고 균형있게 통합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 주체가 한 지향점을 향해 어깨동무 하고 있는 모습으로 로고가 디자인되었습니다. 각각의 고유함이 균형 있게 통합되며 둥근 모양으로 하나를 이루는 형상입니다.

색은 중고등학교를 대표하는 파랑, 유치·초등을 상징하는 올리브그린으로 구성하였고, 각 학교의 로고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두 가지 색이 어우러진 대표 로고로, '중고등학교'와 '유치·초등학교'가 함께 배치될 때에는 '중고등학교'는 파랑, '유치·초등학교'는 올리브그린 색상으로 표기됩니다.

새로운 로고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익숙함을 넘어 로고에 담긴 그 의미를 더욱 살려가는 우리 샘물학교(샘물중고등학교, 은혜샘물유치·초등학교)가 되는데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로고를 시작으로 샘물이 꿈꾸는 동역과 연합, 그리고 하나되는 은혜가 샘물배움공동체 가운데 더욱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샘물교육선교회 후원금은
 '다음세대' 교육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동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샘물의 후원자님 (2016년 7월 ~ 9월)

강매순	김동혁	김은혜	김호삼	박수연	송영석	유기남	이병욱	이지수	정성일	최수미	기쁨누리교회
강문식	김모라	김은희	김호일	박신영	송재형	유민환	이보구	이창길	정수연	최옥남	더사랑의교회
강민구	김미경	김의경	김효정	박연주	신기영	유설자	이봉구	이춘남	정승우	최용준	열린하늘문교회
강성우	김미라	김인경	김후승	박영주	신원선	유수경	이상구	이해돈	정연갑	최원경	은혜샘물교회
강연희	김미란	김인하	김희연	박오순	신윤지	유숙인	이상호	이혁중	정연선	최은경	(주)미담에프엠
계영희	김민규	김재문	김희영	박원희	신준현	유승민	이선경	이현	정영환	최희규	(주)서우타이밍
고영수	김병근	김정현	김희준	박은조	신진아	유시	이선영	이현성	정우철	최종국	(주)세종씨앤피
고영은	김사라	김종대	나경록	박은진	신철균	유시용	이선주	이형섭	정윤석	최지형	(주)와이씨디아이
공정윤	김석진	김종두	나미일	박의부	신현주	유예동	이성민	이형재	정윤주	최한준	아이엠에프재단
곽민환	김선경	김종혁	나종주	박일두	신현화	유정선	이소현	이훈	정은수	최현경	인베스트지앤에스
곽윤주	김선화	김주영	남경옥	박재연	신혜경	윤상미	이송운	이훈재	정은자	최효순	
곽준우	김성수	김준수	남궁선	박재현	심다혜	윤상범	이순희	임선희	정재희	추영혜	
곽현영	김성숙	김준희	남동훈	박정석	심현아	윤승훈	이연희	임성도	정조윤	추충호	
구영희	김성욱	김준희	남상금	박정현	심현주	윤영선	이영주	임성운	정준혁	편혜원	
구현희	김성일	김지영	남형무	박조영	안광호	윤재성	이예경	임영호	정태열	한동수	
국영은	김성진	김지용	노근식	박종준	안균식	윤정선	이옥진	임재훈	정현순	한미아	
권다해	김소중	김지용	노은진	박진수	안미여	윤정숙	이용덕	임지순	조성완	한선이	
권문영	김수영	김지윤	노현훈	박철오	안소요	윤정희	이용우	임혜경	조영란	한세현	
권민창	김수철	김지희	류혜연	박현민	안윤수	윤희상	이용준	임혜숙	조영은	한정석	
권영숙	김수현	김진관	무기명	박현주	안은경	이경림	이원우	장금성	조유숙	한지영	
권택훈	김순두	김진영	문희진	박현준	안은선	이경미	이유태	장금아	조윤희	한채현	
김경란	김연	김태연	민혜경	박홍락	양재원	이경민	이윤정	장상현	조인영	함은희	
김경선	김연석	김태영	박가영	배선양	양희곤	이계환	이윤희	장원희	조현국	함희영	
김경숙	김연우	김태희	박갑윤	배신규	양희수	이광선	이은선	장철희	주유진	허윤지	
김경자	김영광	김푸른피	박경란	백창현	엄종석	이기섭	이은숙	장현정	주현	홍성우	
김관수	김영미	김하영	박경수	백향숙	오미영	이기영	이은실	장혜순	진영탁	홍세진	
김광애	김영수	김학미	박고운	서상원	오승면	이기진	이은아	전동찬	진은주	홍의숙	
김금희	김영익	김한성	박권주	서시내	오중호	이대성	이은지	전미정	차명지	홍지희	
김기순	김영종	김해정	박근성	서영주	오진숙	이동신	이입숙	전병철	차우창	황의경	
김기현	김영환	김현규	박금조	서재완	오판권	이만호	이재용	전용주	차중호	황준구	
김기훈	김용우	김현미	박명수	선애영	오혜정	이미래	이재혁	전혜숙	천초록	황지영	
김낙교	김원기	김현숙	박상우	선지용	왕동식	이미선	이정미	정대근	최길영	황지혜	
김난화	김유진	김현주	박상은	성호모	왕현정	이미영	이주영	정미선	최나리	샘사랑회	
김남경	김은정	김현호	박선희	소재목	왕훈식	이미화	이주은	정미정	최상규	최소명	
김동선	김은주	김형민	박세현	소지훈	우광제	이미희	이주하	정성욱	최소명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독교 학교'입니다!



믿음의 계승자가 사라지는 암울한 현실 가운데,
샘물은 기독교교육을 통해 믿음의 다음세대를 세워갑니다.
하지만 각 가정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 무척 큼니다.
샘물중고등학교가 교회, 가정과 함께 '백만인을 섬기는 예수 제자'를
힘있게 세워 가도록 샘물 공동체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독교학교는 '다음세대 생명과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후원계좌 : 수협중앙회 1130-0049-1086 (예금주:샘물교육선교회)